

이민세대 인기열풍, 그 실제

그들은 문화침략자가 아니다

90년대 재미교포 2세들의 국내 가요계 진출을 필두로 이민 세대들의 국내유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4~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TV나 신문·잡지를 통해 우리문화를 잠식해 왔다.

이러한 문화동향은 근래 들어서 재미교포 누드모델 이승희 열풍,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여 민족주의 문화가로 칭송받는 유미리등의 이민세대 신드롬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그러면 이민세대들이 두터운 우리 고유문화의 벽을 뚫고 짧은 기간 안에 신드롬화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포세대들이 여타 국내 문화 주체들이 모방하고 있는 서구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적 서구문화 체험으로 어설픈 모방이 아닌 신선한 서구문화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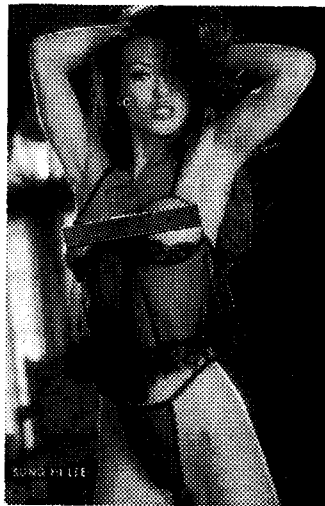
즉 이민세대들은 서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안방의 TV, 가판대의 신문·잡지 등의 일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모방과 표절에 찌든 국내 문화주체들과는 다른 신선함과 진정한 서구문화를 구비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민세대는 얼핏보면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들의 주체적이고 서구화된 의식, 자유로운 사상, 다시말해 그들의 '과격성'은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의 자유이다. 그 점에서 이민세대의 모습은 철저히 '그들만의 것'으로서 그들에게 고유한 자유를 제공한다.

이민세대들의 생활은 전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유미리는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상 아쿠타가와상 116회 수상자이다.



인터넷 누드스타 이승희

이민세대 국내 유입 빠른 진행 교포문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과격적이다.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려고 노력한다면 흉내내기 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가 공유할 수 없는 이질적 문화, 즉 서구문화와 동양문화가 접목되어 새로 창출된 문화가 그들의 기본문화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일 것이다.

공유할 수 없는 세계는 새로운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세계가 되어 우리의 문화속에서 끊임없이 증식한다. 그들은 신선함과 과격성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복제하고 있다. 일종의 자동

화된 생산기체처럼.

요즘들어 인터넷 누드스타로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승희, 그녀는 어린시절의 조국, 한국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대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인기 비대화는 우리의 서구문화 동경에 의한 경향이 라고만은 설명할 수 없다. 인기는 하나의 요소만으로 생산되지 않는 것이다.

우연히 발생되었던, 탄탄한 기획으로 탄생되었던, 상업성 즉, 이윤성과 배합되느냐가 인 기생산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

하다.

서구문화 동경이라는 문화경향, 여러 요소의 융합, 상업성 추구 등의 인기 생산요소를 주도하는 것은 매체문제이다.

화상매체인 TV, 인쇄매체 신문·잡지, 통신 속의 작은 세계 인터넷같은 매체의 작용이 없다면 이승희 인기는 아무리 서구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조성된다 해도 인기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팬

사인회에서 3만원이 넘는 이승희 누드화보집을 손에 쥔 20대 남자들이 300M 정도나 줄을 섰다는 사실에는 이승희가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 여러 인기 요인들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승희, 즉 이민세대의 모습, 이민세대가 계속해서 인기를 배가시킨다는 것은 동경에 의한 인기생산 개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민세대의 모든 것, 특히 그들의 '과격성'은 신선하다거나 예술적이라거나 아니면 선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인기창출이라는 생산 개념에서 볼 때 교포들의 '인기'는 그들 자신 또는 문화가 끊임없이 복제되는 것을 우리 문화 속에서 이민세대라는 이유로 허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물론 우리 절에는 국내 문화 주체들이 우뚝 서 있다. 비록 서구 모방적 모습을 보이는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 문화를 생산한다.

외국문화가 빠르게 유입되고 서구문화 수입경향이 만연하고 있는 현재 동양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서구 혼합적 이민세대 문화와 우리문화의 융합은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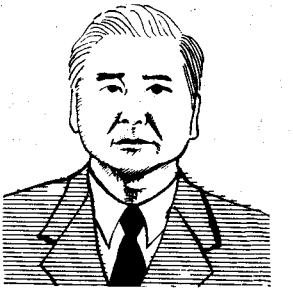
그러나 폐쇄적 민족주의로 포장되고 상업주의와 서구문화의 무조건적 수입경향으로 왜곡된 교포문화는 우리가 배제해야 할 문화이다.

(김응운 기자)

강단시론

최현섭

(문리대 생물)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대학은 상아탑에서 바벨탑으로 바뀌지는 않았는지. 현대의 과학의 기술은 고대인은 고사하고 19세기인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그리스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훔쳐내서 이 불을 인간에게 제공했다고 하나, 현대의 과학자는 원자력의 불을 훔쳐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원자력발전소를 하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달로가는 로켓을 만들어 긴 세월 동안 인간에게 낭만적인 존재였던 월세계로 인간을 보내서, 달의 사막에서 모래 먼지를 피워가면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TV에 방영시킨 것이다. 토성을 향해서 쏘아 올린 로켓은 계산대로 날아 가서 수개월 후에는 토성의 정보를 지구에 송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대과학의 기술은 바야흐로 고대인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류의 해가 된 과학발전

학생들은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과학기술의 훌륭한 점을 보고 흥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학에 입학하면 이런 훌륭한 과학을 공부하자라고 하여 가슴이 설레서 흥분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런지 모른다. 확실히 과학의 높은 봉우리는 연속된 봉우리가 되어

종지 않게 표현을 한다면 덜 영리한 것이라고나 할런지 모른다. 여러가지 과학기술이 기구사용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이용가능케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과학기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몇년 전에 세상을 떠난 로켓의 아버지 '본 브라운'은 독일의 나치를 위해서 로켓 V를 개발하여 영국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 '브라운'은 미국으로 끌려가서 로켓기술이 뒤떨어졌던 미국을 위해서 엑스플로러 1호를 만들었다. '브라운' 머리에서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큰 로켓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로켓을 비행시킬 수가 있을까 라는 사실만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 로켓이 어떻게 이용될 수가 있는지는 생각지 않고, 독일의 나치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도 훌륭한 로켓 기술자로서 활약을 했다. 여기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형태와 모양새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살인병기를 만들라고 하면 어떤 살인병기도 만들고, 우주로켓을 만들라고 지시하면 전력을 다해서 그 로켓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목표의 선악은 기술자가 몰아야 할 것이 못된다. 과연 이런 것으로 좋겠는가라고 '본'은 자문했던 것이다.

바벨탑은 왜 폐허가 되었을까. 성서에 의

상아탑 바로 세우기

우리들 앞에 우뚝 서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정에 올라 서면 감격하는 것처럼, 과학의 높은 봉우리에 오른다는 것은 과연 쉽지는 않지만 할만 하며 할 보람을 느끼게 한다.

수학의 문제가 풀렸을 때에 환희성을 지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학문의 세계를 하나 하나씩 정복하고 나아가는 것은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 하늘에 도달할 수 없이 우뚝 솟아 있는 과학의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인지. 현대의 기술은 대단한 기세로 발전하여 왔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연은 파괴되어 오지는 않았는가. 이 기술의 은혜로 생활은 풍요롭게 되었지만, 환경은 오염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었는지. 원자물리학이 원자력을 조작 가능한 것으로 했을 때, 인류는 우선 원자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원자폭탄을 만들어 냈다.

세계의 물리학계의 최고원로인 '막스 본'은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영리하고 유능한 학생이 있다는 것은 만족스럽지만, 학생의 Cleverness가 좀더 적고, Wisdom이 조금 많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이 된다. 학생들이 교수에게서 배운 것이 연구의 방법만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교수일 것이다. 지금에 와서 학생들의 Cleverness가 세계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 뜨리고 있다" 라고 말했다.

'본'의 Cleverness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한편 말이 서로 통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쓰여져 있다. 실제로 현재의 과학도 언어불통이다. 물리학자가 주창하는 말을 경제학자는 이해할 수가 없고,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술자는 모른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나 기술자는 사상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과학은 조작 가능성이란 특성 때문에 급격한 발전을 했지만, 그 발전에 의해서 과학기술은 조작할 수 있는 도구로 되어 버렸다. 그리고 왜 과학기술의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과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의심치도 않았다.

탐구적 자세로 진리추구

사실대로 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비대해지는 것에 반비례해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쪽은 일반적으로 쇠약해져지는 않는 것이지만, 사상이 없는 인간은 내용이 없는 빈 텅텅이 공동(空洞)이 된 인간이다. 쇠약하고 공동화된 인간은 과연 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과학기술을 사용가능케 할는지. 바벨탑의 실패를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류는 이 공동을 채워야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에 재학 중에 여러분은 전문지식을 함양기 위해서 공부함과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를 의문시 해서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세계는 여러분의 양 팔과 어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장취재

류재을(조선대 행정 2)군 장례식을 다녀와서

고인의 가는 길을 왜 막는가

지난 3월 20일 시위도중 사망한 류재을(조선대 행정·2)군의 장례식이 애초 예정일을 8일이나 넘긴 23일에서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의 학생과 재야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옛 망월동묘역에서 치러졌다.

지난 16일 한총련은 류군의 장례식을 진행하기 위해 조선대 교내에서 영결식을 갖고 교문 앞 노제를 치르되 △정부와 경찰의 공개사과 △요구해령보장 △부검판례를 요구하며 전남도청앞에서 다시금 노제를 치르기 위해 교문으로 나섰으

나 '도청 앞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전경 8천여명이 운구행렬을 막아 나가지 못했다.

16일 이후 계속적으로 도청 앞 노제를 성사시키려는 학생측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측 사이를 치열하게 겨룬 끝에 마침내 장례식이 성사되기까지 약 7백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몇지대의 한 학생은 발사된 최루탄이 스코인던 안경에 맞아 현재 실명 위기에 있으며 남총련 소속의 한 학생은 마친 가지로 최루탄에 의해 이마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19일 오전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전경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려고 지난 파출소를 방문했는데 경찰은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공포탄 3발과 실탄 2발을 쏘며 해산시켰다.

23일 장례 당일에도 전경들이 도청을 봉쇄하여 4시간 정도의 대치상황을 겪다 결국 도청 앞 금남로에서 노제를 성사하여 새벽 1시 경 류군을 망월동 묘역에 안장했다.

류군의 장례행렬을 가로막은 경찰은 '도청 앞 시설물 보호'를 그 이유로 내세웠으나 17일 도청 앞 금남로에선 학생, 시민이



참여한 5·18 전야제가 있었고 18일 당일엔 '5·18민중항쟁 17주년 정신계승국민대회'가 별 마찰없이 개최되어 노제불허의 타당성이 결여된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류군의 사망원인을 수사해오던 경찰과 검찰은 20일 사망을 내어 류군의 사망원인을 경찰은 '도청 앞 시설물 보호'를 그 이유로 내세웠으나 17일 도청 앞 금남로에선 학생, 시민이

(김동욱 기자)



열린교육, 투명행정을 표명해 온 경희대학교는 97학년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경희대학교 예산공고

자금예산서 (교비회계 및 기성회회계)
(1997. 3. 1~1998. 2. 28)

부속병원 자금예산서
(1997. 3. 1~1998. 2. 28)

법인일반회계 자금예산서
(1997. 3. 1~1998. 2. 28)

법인의수사업회계 자금예산서
(1997. 3. 1~1998. 2. 28)

기관명: 경희대학교				(단위: 백만원)				
구분	주 목	금 액	과 지 목	구분	주 목	금 액	과 지 목	
1.	통계연구	(96,905)	1. 보수	(64,979)	7. 교정부채입금	(3,718)	(8)종합시행료	48
(1)인건비	2,860	(1)교원보수	46,795	(1)장기차입금	3,718	(9)기타학생부	1,985	
(2)수료료	59,244	(2)직원보수	18,183	8. 미사용연기차입차입	(2,100)	(10)입시성별	508	
(3)기타비회	31,992	2. 관리운영비	(19,287)	(1)인건비	1,985	(11)입시성별	1,949	
(4)단기차입금	2,809	(1)전속물관리비	7,865	4. 교육혁신비	(667)	(1)차관금	940	
2. 전의 및 관리수입	(42,574)	(2)기타관리비	667	(1)차관금	940	(2)장손금	1	
(1)경비예산입금	4,011	(3)조경관리비	293	5. 전출금	(1,000)	(1)특별회계전출금	(1,000)	
(2)법정부담전입금	1,547	(4)박물관관리비	47	(1)특별회계전출금	(1,000)	6. 예비비	(1,711)	
(3)자산잔입금	12,639	(5)시설유역비	642	7. 우자화기타자산지출	(1,744)	(1)부수출입금	2	
(4)부속변환전입금	7,291	(6)보험료	48	(2)연구구입금	381	(2)연구구입금	381	
(5)특별회계전입금	1,576	(7)소수·합자·합자	129	(3)전속구입금	100	(3)전속구입금	100	
(6)일반회계입금	129	(8)일반회계관리비	687	(4)장학구입금	120	(4)장학구입금	120	
(7)지방자치보조	1,658	(9)여비출발금	726	(5)기타구입금	1,099	(5)기타구입금	1,099	
(8)연구구입금	4,880	(10)차량유지비	212	(6)전신·전화·방송·유선	2	(6)전신·전화·방송·유선	2	
(9)시설·설비보조	1,729	(11)소모품비	581	(7)일반회계출입금	40	(7)일반회계출입금	40	
(10)도산보조금	696	(12)인건비	521	8. 고정자산매입지출	(33,865)	(1)기계구입금	7,377	
(11)자조노력지원	670	(13)난방비	404	(2)장기기구입금	1,851	(2)장기기구입금	1,851	
(12)기타보조금	5,748	(14)연구구입금	1,083	(3)차량소모구입금	230	(3)차량소모구입금	230	
3. 교육혁신비	(2,981)	(15)통계비	635	(4)도산지출	2,184	(4)도산지출	2,184	
(1)입학관리비	74	(16)계기구입금	521	(5)배달·음식·주입비	30	(5)배달·음식·주입비	30	
(2)수업료	2,078	(17)기타구입금	118	(6)전기기계장	22,150	(6)전기기계장	22,150	
(3)출행 및	153	(18)복합기	553	(7)무형고정자산취득비	43	(7)무형고정자산취득비	43	
(4)대여 및	379	(19)교육훈련비	432	9. 고정부채상환	(1,889)	(1)장기차입금상환	1,421	
(5)대여차	134	(20)일반유역비	296	(2)차관상환	468	(2)차관상환	468	
(6)실습비	16	(21)업무추진비	769					
(7)기타교육부담금	147	(22)정보비	313					
4. 교육혁신비	(5,151)	(23)회계비	769					
(1)예금이자	4,100	(24)행사비	1,087					
(2)장수입	1,051	(25)기타유역비	169					
5. 투자자산매입지출	(2,268)	(26)연구개발비	(30,286)					
(1)투자자산매입지출	1	(27)연구·학생비	11,516					
(2)연구구입금	130	(28)연구관리비	70					
(3)장학구입금	20	(3)장학금	1,554					
(4)기타구입금	2,117	(4)학비감면	9,589					
6. 고정자산매입지출	(4)	(5)장학금	2,205					
(2)연구구입금	2	(6)논문실험료	214					
(3)장학구입금	2	(7)학생지원비	898					
(4)기타구입금	2							
합 계				합 계	155,701	합 계	155,701	